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신안 1028개 섬의 자연과 ‘1섬 1뮤지엄’ 정책을 결합, 섬 전역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신안형 문화발전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아 추진하게 된다.

신안 전체 ‘지붕 없는 미술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지정
박물관 건립·1섬 1뮤지엄·1섬 1정원 등 체류형 관광 확대

각 섬별 특성을 살린 박물관과 뮤지엄, 정원을 확대하고 있는 신안군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선정되며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신안 1028개 섬의 자연과 ‘1섬 1뮤지엄’ 정책을 결합, 섬 전역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신안형 문화발전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아 추진하게 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

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안군은 중기부와 함께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고, 군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신안군의회 보고 등 행정 절차를 밟아 지정받기 위해 준비했다.

특구의 핵심 사업은 세계적 예술가와 협업하는 섬 박물관 건립, 1섬 1뮤지엄·1섬 1정원, 1004섬 관광·계절별 축제 활성화, 1004굴 등 신안 수산물의 융복합 산업화다.

이를 통해 체류형 문화관광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1섬 1뮤지엄’과 ‘1섬 1정원’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섬의 매력을 선보이며, 신안의 섬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은 “신안의 섬 자체가 박물관이자 정원이 되는 모델을

정착시켜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됐던 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가 찾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는 신안 시금치·대파산업특구, 천일염산업특구에 이어 3번째 특구가 된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최고 품질’ 친환경 강진쌀, 해외시장 수출길 확대

군, 일본기업과 간담회
품질 우수성·경쟁력 소개
올해 270여t 수출 성과

강진군이 일본 농산물 수입·가공 기업을 초청해 강진쌀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군 통합RPC(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일본 ㈜토요츠 식량, ㈜세비아 관계자들과 강진군 통합RPC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쌀 수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참석해 일본 기업 관계자들을 환영하고, 강진쌀의 우수한 품질과 수출 경쟁력을 강조하며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간담회는 강진쌀의 현장 품질을 소개하고, 앞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농산물 교류를 넓혀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일본에서 식품 유통과 가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토요츠 식량과 세비아가 함께 참석하면서 강진쌀의 일본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 통합RPC에서 강진원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토요츠 식량, ㈜세비아 관계자들, 강진군 통합RPC 임직원 등과 함께 ‘강진쌀 수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졌다. 토요츠 식량은 지난 2008년부터 미야기현 농업법인 ‘베지드림’을 통해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등 농업과 상업, 공업이 결합된 6차 산업 모델의 성공 사례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강진군 통합RPC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 강진쌀 수출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대적인 설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이끌고 있다.

올해는 일본, 미국, 몽골 등에 총 270여t의 강진쌀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말 기준 500t까지 수출을 기대하

고 있다.

지난달에는 일본 식품기업인 ‘이조원’과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면서 강진쌀의 일본 내 인지도를 높였다. 현재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도 준비 중이다. 강진쌀은 일본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정당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강진쌀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품질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일본 시장 진출을 물론, 더 넓은 글로벌 시장으

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진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진쌀의 해외 시장 개척과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산물 수출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현지에서도 강진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본 내 유통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영암, 민관 협력 모의 사례관리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주최… 전국 11개 지자체 중 ‘군 지역형’ 수상

다문화 취약가정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영암군의 사례관리가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대전에서 열린 ‘2025년 민관 협력 모의 사례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2차 서면심사와 현장발표를 통한 전국 11개 시·군·구가 참여한 경진대회에서 영암군의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가 ‘군 지역형’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이번 경진대회에 다문화 취약가정의 회복탄력성 강화, 다차원 통합사례 지원 등을 내용으로 참여했다.

특히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복합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의료·주거·심리·교육 등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위기의 다문화가정에 안정을 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나아가 통합사례관리 가정이 스스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지원 연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복지전달체계를 설명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승의 군수는 “사람과 삶을 먼저 살피고,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내실을 다져온 영암군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이 이번 경진대회에서 빛을 발했다”며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이고, 영암군민 모두가 충분한 복지를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완도, 차세대 해양수산 이끌 인재 양성

내달 19일까지 한국수산벤처대학 신입생 모집

완도군은 미래 수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2월 19일까지 2026학년도 한국수산벤처대학 수산벤처 과정 제20기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10개 월간 진행되며, 수산 정책 관련 실무 이론, 해양 수산 컨설팅(수산 경영 및 마케팅, 창업, 시제품 제조), 국내·외 현장 학습 등 벤처 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산 벤처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전략적 경영 능력과 리더십, 글로벌 수산업 동향 등을 심화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 이수 기회가 제공된다. ‘제18기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박창숙, 김순희 교육생은 전북 패각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석고 방향제를 개발해 ‘2025년 전남 해양 수산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발굴 역량 강화 사업’과 ‘2025년 해양 스타트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에

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원 자격은 거주지와 학력 제한이 없으며, 만 65세 미만 수산업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로 수산 벤처에 관심이 있는 수산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원서는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전남 완도군 신진면 해양자유길 220)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전자우편(jhj86@chosun.ac.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062-608-5922) 또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061-550-510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수산벤처대학은 지난 2007년 완도군, 전남도, 조선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해양수산 분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한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목포, ‘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 목표 초과 달성

160개 기업 참여·139명 현장 채용 등 가시적 성과

최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린 ‘2025 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 추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최종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전남도와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와 목포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했다.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목포, 나주,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에서 160개 기업이 참여해 행사 당일에는 관계자 등 1427명이 현장참을 방문했다.

성과 분석 결과 현장 면접부스와 채용 게시판을 통해 총 828명이 면접을 신청했으며, 이 중 139명이 채용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직 102명(73.4%), 기간제 근로계약 37명

(26.5%)이었고, 직종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49명(3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보건 의료 39명(28%), 판매·서비스 22명(15.8%), 사무직 19명(13.7%), 제조·생산 6명(4.3%), 기타 4명(2.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18명(13%), 30~39세 25명(18%), 40~49세 38명(27.3%), 50~59세 38명(27.3%), 60세 이상 20명(14.4%)으로 전 연령대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 이상이 ‘만족’이라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체력과 불거리가 많았다”, “참여 인원이 많아 홍보가 잘된 것 같다”는 반응이 있었으며, 개선 의견으로는 “지역 일자리 면접이 적었다”, “장소가 다소 협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6년 전남 여성일자리 박람회가 구인 기업과 구직 여성 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